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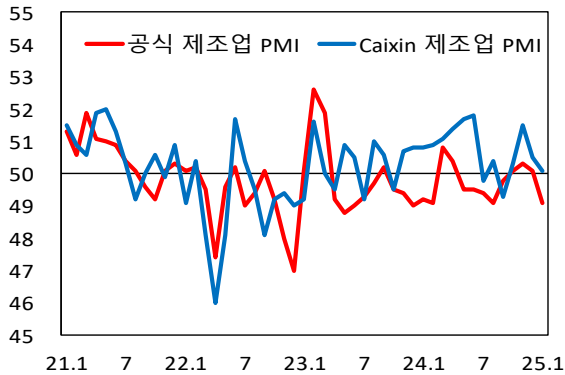
제목

중국 1월 제조업 PMI 하락

1. 1월 PMI의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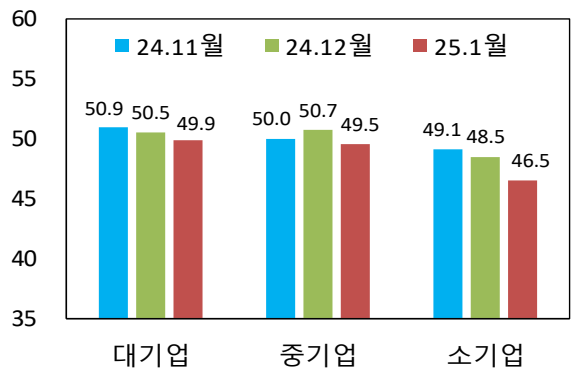
- (제조업 PMI) 1월 제조업 PMI는 49.1로 전월(50.1)보다 1.0p 하락하면서 4개월만에 기준치(50)를 하회
- 규모별로는 대기업(24.12월 50.5 → 25.1월 49.9), 중기업(50.7 → 49.5), 소기업(48.5 → 46.5)이 모두 하락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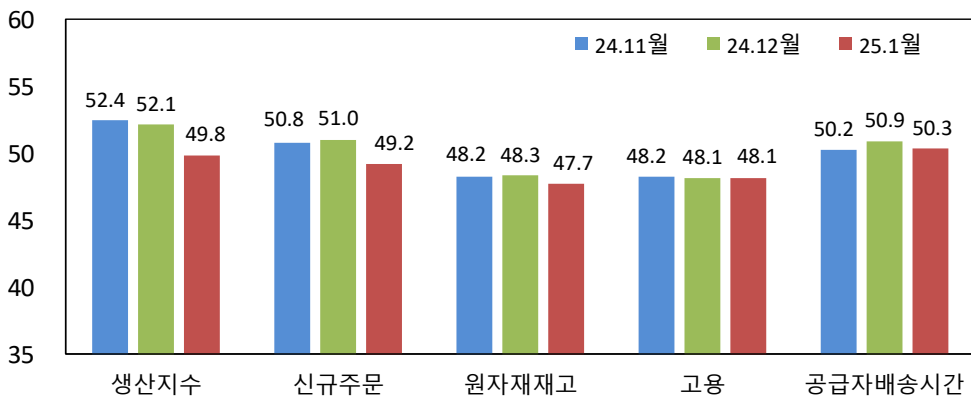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-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용(24.12월 48.1 → 25.1월 48.1)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, 생산(52.1 → 49.8), 신규주문(51.0 → 49.2), 원자재재고(48.3 → 47.7), 공급자배송시간(50.9 → 50.3)은 전월에 비해 하락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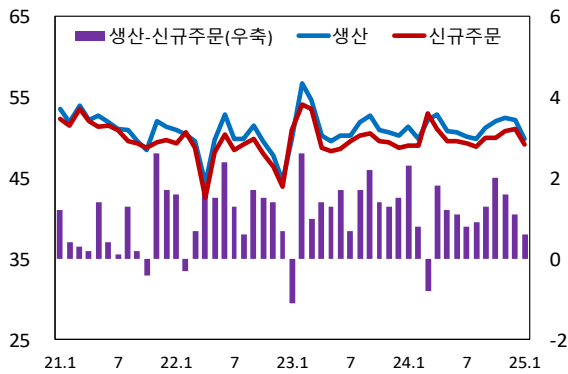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—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**생산지수**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**신규주문지수** 간 **차이**는 **축소***

* 생산지수 - 신규주문지수: (24.9월) 1.3 → (10월) 2.0 → (11월) 1.6 → (12월) 1.1 → **(25.1월) 0.6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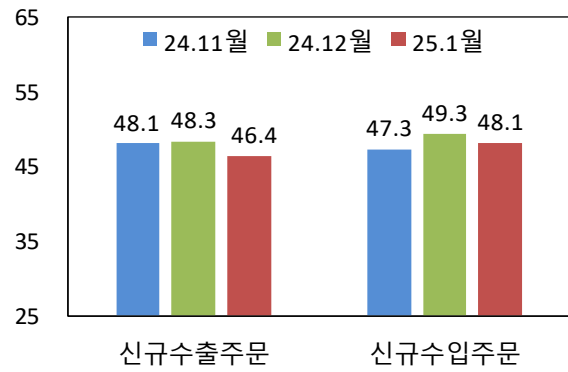
— **신규수출주문***(24.12월 48.3 → 25.1월 46.4)과 **수입**(49.3 → 48.1)은 모두 전월보다 **하락**

생산 및 신규주문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수출입 관련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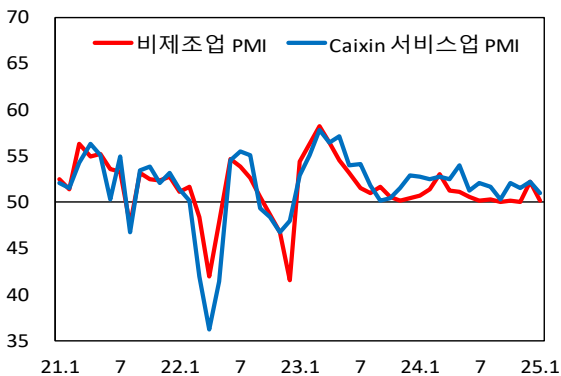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비제조업 PMI) 1월 비제조업 PMI**는 **50.2**로 전월(52.2)에 비해 **큰 폭(2.0p)** **하락**

○ **서비스업**(24.12월 52.0 → 25.1월 50.3)은 통신, 수상운송, 우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**크게 하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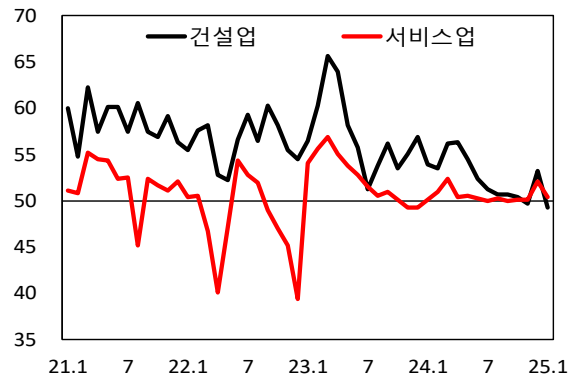
○ **건설업**(53.2 → 49.3)은 야외 건설 활동 둔화 등으로 전월에 비해 **큰 폭 하락**

비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종합 PMI) 1월 종합 PMI***(50.1)는 **전월**(52.2)에 비해 **큰 폭(2.1p)** **하락**

*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

2. 시장평가 및 전망

□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는 빠른 춘절(春節) 연휴(1.28.~2.4.)를 감안하더라도 시장 예상치*(블룸버그 예상치 중앙값 기준)를 크게 하회하면서 **부진**

* (제조업 PMI) 예상 50.1 / 실제 49.1, (비제조업 PMI) 예상 52.2 / 실제 50.2

○ 제조업 PMI는 내수 및 대외 수요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, 춘절 대이동*의 영향으로 생산도 크게 줄어들면서 큰 폭 하락(中信証券 등)

* 2025.1.14.~2.22일까지 이어지는 40일의 춘원(春運·춘절 특별 수송) 기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원 9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(중국 교통부)

— 더군다나 공산품 출고가격지수*가 낮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향후에도 중국기업들의 매출 및 수익성** 부진 지속이 우려(金融時報)

* (24.9월) 44.0 → (10월) 49.9 → (11월) 47.7 → (12월) 46.7 → (25.1월) 47.4

** 2024년 일정규모(연간 매출 2천만위안) 이상 공업기업의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3.3% 줄어들면서, 2022년(-4.0%), 2023년(-2.3%)에 이어 3년 연속 감소

○ 건설업 PMI는 기온 저하에 따라 야외 건설이 줄어든 데다,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주 노동자의 귀환 등으로 건설 활동이 위축되며 크게 하락(申万宏源)

□ 춘절 이후 기업활동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**정부의 소비 및 민생 부문에 대한 지원책**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나, 대외적으로 **미국의 경제통상 정책**에 따른 **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**

○ 1월 PMI가 춘절 이동에 따른 생산활동 둔화 등 단기적 충격으로 급락했으나, 향후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*되고 있어 조만간 제조업 PMI가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(申万宏源)

* 생산 및 경영활동에 대한 기대지수
(24.9월) 52.0 → (10월) 54.0 → (11월) 54.7 → (12월) 53.3 → (25.1월) 55.3

○ 경제성장 경로의 경우 소비 및 민생 부문 지원 등 양회(兩會) 결과(3월)와 지방 정부의 정책 실행 노력* 등에 주목할 필요(中信証券)

* 31개 성의 2025년 평균 GDP 성장률 목표는 5.26%

○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% 부과(2.1일)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일련의 조치*(2.4일)를 발표한 가운데, 향후 미·중간 추가적인 정책과 대응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(中金公司)

* 석탄·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~15% 관세 추가 부과, 텅스텐·텔루륨·비스무트·몰리브덴·인듐 등 원료의 수출통제 조치,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개시 등